



# “방황의 순간에도 포기 못하는 예술적 삶에 던진 질문”

‘행간’으로 제10회 광일문학상 수상 소설가 김현주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감사합니다. 쑥스럽지만 소설가로 다시 복무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10회 광일문학상에 선정된 김현주(53) 작가는 “자사(自社) 등단 작가에게 애정을 갖는 신문사가 있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며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등단지면이 광주일보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장흥 출신인 김 작가는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길이 없는 길을 향하여’로 데뷔했다. 그러나 등단 이후 내용이 부족해 적지 않은 시간을 공백기로 보냈다고 한다.

“충분한 습작기를 거치지 않아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습

김 작가는 신춘문예에 등단하기 이전에는 시를 썼었다. 그러나 시만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가 없어 소설로 방향전환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글을 써야 하는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소설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터라 ‘밥’이 되지 않는 소설을 쓰면서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오랫동안 소설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기간 그녀는 모든 작가와 작품이 스승이었다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주위의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스승이고 동지였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방황을 했던 만큼 앞으로는 그 힘으로 소설을 쓸 계획이다.

## 1993년 ‘길이 없는 길을 향하여’ 광주일보 신춘문예 등단 이후 공백

### “호남 역사인물에 관심... 잃어버린 시간만큼 글농사 성실히 짓겠다”

니다. 소설에서 도망쳐 살아온 날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구요. 그러나 광일문학상을 계기로 다시 책상머리에 앉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상작 ‘행간’은 예술이란 무엇이며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어느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일상을 토대로 윤리의 지점에서 고민하는 주인공을 화자에 대입시켜 풀어낸 작품이다. 고통을 견디면서도 예술적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주인공을 통해 과연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행간’은 안정된 구도와 인물들의 독특함이 개성적 진술을 통해 짙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면서 “어전히 자신의 소설을 실현할 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전착한 면이 흥미롭게 다가왔다”고 평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역사입니다. 글쓰기에도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역사는 작가인 저에게 호남인으로서, 호남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지금 읽고 있는 호남의 역사인물들이 글쓰기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글농사’를 성실히 지을 계획이다. 사실 소설은 완벽하게 몰입을 요구하는 작업이지만 현실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녀는 소설을 쓰고자 하는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한다. “한 해 한 해,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는 열매 맺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쓴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겠지요.”

/글=박성천기자skypark@·사진=나명주기자 mjna@



## 폐가, 한옥으로 ‘새숨’

신시와 커뮤니티, 게스트 하우스 내일 오픈

광주 동계천로...지역 작가들 분기별 전시도

비어있던 공폐가가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앞으로 분기별로 지역 작가들의 전시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단 순한 숙박공간을 넘어 문화공간으로도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시와 커뮤니티’ 협동조합(이사장 박성현)은 3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동계천로 81-3에서 ‘게스트하우스 신시와 (畵)’ 1호점(사진)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픈식에는 마을 주민과 공동체활동가, 광주시청, 동구청, NGO센터, 마을 기업 및 협동조합 관계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 신시와’는 커뮤니티를 통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온 결과물이다.

박성현 이사장은 “게스트하우스 신시와는 ‘마을이 답이다’라는 취지로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동시에 지역의 현안적 문제를 문화예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옛 두레에서 길러진 공동체 정신을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마을과 예술, 문화와 예술 등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흘러넘치는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시와 커뮤니티는 ‘게스트하우스 신시와’를 주민들의 삶과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지역 문화거점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1호점 오픈과 함께 2호점, 3호점 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삶과 맛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게스트하우스 신시와’는 한옥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살려 게스트하우스 내에 지역작가들의 작업을 분기별로 릴레이 전시할 예정이다. 3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사진작가 겸 다큐멘터리 연출가 최성욱씨의 ‘잃어버린 시간’전이 열린다. 최씨는 사진 작품 22점과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33-27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미술관 음악 ‘아름다운 동행’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송년 음악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미술관 1층 로비에서 미술관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테마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다문화가정과 장애우들을 초청해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현악4중주, 남성듀엣, 성악, 색소폰 연주, 변검, 베트남 춤, 인도·몽골 악기 연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1부 공연은 배려가 넘쳐나는 새해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별공연으로 광주팝스오케스트라 단장인 서영균의 색소폰 연주를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중국의 변검, 베트남 춤, 인도와 몽골의 전통 악기 연주 등이 무대를 꾸민다. 문의 062-613-71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판소리로 듣는 ‘이야기책’

국악방송, 창작 판소리 음반 출시



국악방송(사장 채치성)이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판소리 음반을 내놓았다. 새 음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 남짜리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동명의 이야기책(서정오 글, 최현목 그림)을 원작으로 한다.

음반은 원작 이야기책에 실린 ‘꼬꼬만남 옛 이야기’, ‘달을 산 사또’, ‘방귀쟁이 머느리’ 등 5편을 미니판소리로 실리고, 음반 전체를 아우르는 한 곡의 주제곡이 더해져 모두 6곡으로 구성돼 있다. 창작국악그룹 ‘그림(The林)’을 이끌고 있는 신장렬씨가 작곡했으며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등 창작판소리 분야에서 대중성을 입증해 온 최고의 창작집단과 소리꾼이 참여했다. 문의 02-300-9936. /김미자기자 mekim@



박시연 | 배수빈 | 노민우 | 엄현경 9월 27일 [토] 밤 8시 30분 첫방송 제작 C-STORY DRAMA PRODUCTION